

전남농협 남악시대 열었다

사옥 준공·직거래 행사 “매출 3조원 시대 열 것”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15일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과 광주·전남 농·축협 조합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삼합읍 남악시 신축사옥 준공식을 가졌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15일 이낙연 국회의원회장과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 광주·전남 농·축협 조합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사옥 준공식과 농·축산물 직거래 한마당 개장식을 가졌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15일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과 광주·전남 농·축협 조합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삼합읍 남악시 신축사옥 준공식을 가졌다. 전남지역본부는 1922년 광주시 동구 대의동에 설립된 지역 최초의 금융조합으로 출발했다. 이후 1961년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통합된 농협중앙회 전남도지부로 개편됐으며, 1976년 대의동에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로 출범한 후 농업·농촌 및 농업인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 2006년 대의동 사옥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편입됨에 따라 중흥동 남악빌딩으로 임시이전했으며 지난 3월 90여 년의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 남악지구로 신사옥을 이전했다.

특히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 지난 3월에 경제사업부 조직을 기존의 3개 팀에서 경제기획팀·산지육성팀·시장개척팀·양곡자재팀·축산사업팀 등 5개팀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본부는 농·축산물 매출 3조원 시대를 조기에 열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전남지역본부는 준공식과 함께 지역본부 1층 하나로클럽 앞마당에서 ‘전남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비전 선포식과 향후 100년을 향한 결의문 채택과 함께 전남살 소비촉진을 위한 떡메치기, 축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이에 앞서 전남지역본부는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과 광주·전남 관내 농·축협 조합장, 시·군지부장 등 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본부 업무보고회를 갖고 ▲농·축산업 현황 및 나아갈 방향 ▲새농협 출범 후 사업별 추진전략·개선사항 등 전남농축협 도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원병 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최근 진행중인 ‘식(食)사랑 농(農)사랑 운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바로 알리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영조 본부장은 “전남농협은 명실상부한 농업인의 대표조직으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책임지고 팔아 주는 판매중심 농협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 지원사업 등을 더욱 강화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더 큰 전남농협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외국인 10일째 “팔자” 코스피 1900선 붕괴

코스피가 1900선 아래로 떨어졌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14.77포인트(0.77%) 하락한 1,898.96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5.99포인트(0.84%) 내린 1,897.74로 출발한 뒤 31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다소 만회했다.

주가 하락은 유럽발 위기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4일 유니크레디트은행 등 이탈리아의 26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10일째 ‘팔자’에 나서 1797억원의 매도우위를 나타냈다. 개인은 197억원, 기관은 216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내렸다. 비금속광물(-2.05%), 전기가스(-2.61%), 운수항공(-1.62%), 증권(-

1.11%)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음식료품(0.33%), 의료정밀(0.68%), 통신(0.46%) 등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사들은 대체로 내렸다.

삼성전자가 0.23%(3000원) 하락한 131만1000원을 나타냈다. 삼성생명(-2.03%), LG화학(-2.00%), SK하이닉스(-3.07%) 등이 비교적 낙폭이 컸다.

한국전력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2.83% 내렸다. 셀트리온은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부담으로 6.98% 급락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객이 늘어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였다. 강원랜드가 3.82%, 파라다이스가 4.31% 각각 올랐다. 호텔신라(0.93%)와 모두투어(1.52%)도 상승했다.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둔 네오위즈게임즈는 3.78% 올랐다.

연립뉴스



셀 코리아 언제 멈출까 코스피가 1,900선 아래로 떨어졌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14.77포인트(0.77%) 하락한 1,898.96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1,897.74로 출발한 뒤 31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다소 만회했다. 사진은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립뉴스

수출물가 오르고 수입물가 안정세

원자재 가격 큰 폭 하락...교역조건 개선

수입물가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았지만, 수출 물가는 올라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2012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 변동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물가 영향과 교역조건을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4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1.7% 오르는 데 그쳤다. 2010년 3월 -4.3% 이후 최저치다. 비철금속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10월부터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원유와 석유제품 등 수입 가격이 최근 크게 내린 영향으로 3월 대비 수입물가는 1.0% 하락했다. 수입물가 마이너스 전환은 작년 11월(-1.6%)에 이어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1125.90원에서 1135.55원으로 0.9% 절하됐지만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22.5달러에서 117.3달러로 4.2%나 하락한 게 주원인이다.

품목별로 보면 원자재는 전월 대비 대두, 옥수수 등 농림수산물(1.2%)의 상승에도 원유, 유연탄 등 광산물(-2.6%)이 많이 내려 2.3% 하락했다.

중간재(-0.2%), 자본재(0.9%), 소비재(-1.1%) 등도 하락 또는 소폭 상승에 머물렀다.

환율변동 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으로 한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2%, 전년 동월 대비 2.5% 각각 내렸다.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했다. 농림수산물이 전월 대비 0.5% 내렸지만 공산물 가운데 운송장비 제품, 일반기계·장비 제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 제품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0.3%, 1.9% 각각 하락했다. 연립뉴스

인터넷쇼핑 최다 피해 ‘패션용품’

소보원 지난해 4291건 접수...전년보다 5% 늘어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에서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4291건으로 2010년 대비 5.3% 늘었다.

이 가운데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531건(35.6%)에 달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524건(12.2%), 정보통신기기 488건(11.4%), 문화·오락서비스 259건(6%), 문화용품 206건(4.8%) 등이 뒤를 이었다.

예약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여행 및 숙박시설 등 문화·오락서비스는 전년보다 40.6%나 급증했다.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 피해(40.9%), 품질·애프터서비스(36.6%), 부당행위·약관(18.5%) 등이 대부분이었다. 피해금액은 5만 원 미만(22.9%), 5~10만 원(16.9%), 10~20만 원(19.2%) 등 20만 원 미

만이 59%였으나 50만 원 이상 고가 구매에 따른 피해도 22.3%나 됐다. 평균 피해액은 48만 5186원으로 전년(36만 1338원)보다 12만 원가량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52.4%)가 여성(47.6%)을 능가했고 연령별로는 20대(28.8%)와 30대(39.2%)가 압도적이었다. 피해 가운데 2천369건(55.2%)이 구제를 받았는데 환급(30.2%), 계약해제(6.3%), 배상(6.2%), 교환(3.7%)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물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 정보를 일괄적으로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거래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의 적용범위를 5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립뉴스

“연금저축 정보 한눈에” 컨슈머리포트 곧 공개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컨슈머리포트가 조만간 공개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감원 본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판식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저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컨슈머리포트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률이 낮아 계약유지율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연금으로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금저축 정보가 공식되면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정보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이 수익률 관리에 나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권 원장은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컨슈머리포트를 꾸준히 발간하면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립뉴스



비옥한 황토밭에서 나고 자란 우리 농산물은 무안농협에서

농협공동사업법인(쌀)



16회 농업인의날 국무총리상 수상
2010년 2011년 2년연속 12대 고품질브랜드쌀 수상하여 러브미 인증
2010-2012년 3년연속 전남최고쌀 선정 도시사 표창
2011년 미국종합처리장 경영우수농협 선정 대상 수상

농식품부 발브랜드 사업 “황토랑콩”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 身土不二

농협공동사업법인(양파)



무안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꿈과 미래가 있는 황토 무안

무안농협동조합

홈페이지 : <http://www.muannh.com>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 2길 28

- 본점 : 061-453-2581
- 행정지점 : 061-452-2601
- 망운지점 : 061-452-1601
- 서부지점 : 061-453-6781
- 중부지점 : 061-454-4101
- 해제지점 : 061-452-6601
- 주유소 : 061-453-5156
- 양파법인 : 061-454-3210
- 쌀공동사업법인 : 061-452-6605